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2월 2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고난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은 저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 임윤자 -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뇌성마비를 앓던 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옆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몸과 마음이 점차 변화되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는 분의 결혼식에서 집례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는지 시아버님께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 예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만에 시어머님이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불신자였던 시어머님이 가족에게 교회에 다니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막내 시누이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같은 동네 성도님들과 구역예배를 드리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불교신자인 새어머니를 만나 절에 가서 혼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자 목장을 운영하면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던 저는 새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못하고 구역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집과 목장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목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버님과 새어머니는 따로 집을

지어 분가하셨는데, 신축한 집 옥상에 절까지 들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안양시와 시흥시 경계 지역인 목감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취직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 일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였지만 남편은 한 번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취직과 함께 저희 가족은 안산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옆집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이 되어 두 딸과 아이들을 데리고 전에 없던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하루하루가 무척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목장에 사료를 배달하는 운송업을 하는데, 어느 때부터 사고가 잦았습니다.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저는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안도하며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저에게 1년 동안만 교회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 다니지 말고, 그래도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남편의 제안을 따르거나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저였기에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시아버님이 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같이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독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막내시누이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시아버님을 전도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 남편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가 아버님 영전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비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남편이 출근한 주일에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며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하는 핍박은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어린 아들에게 차마 나처럼 참고 견디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옆집의 구역장님과 교구 전도사님에게 성경책을 맡겨두고 교회를 오가며 어렵게 예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성경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곳 안산성전에 오실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있던 중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부정맥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상심실성 빈맥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보며 수구역장님, 구역장님들과 함께 전도와 교회 봉사에 힘썼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에스더기도회에 나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부정맥을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을 말끔히 없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남편이 비로소 아들에게 사과하며 저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잘 자라서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글을 쓰는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딸과 사위 부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무런 사고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더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가족을 지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7단원 :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제38과) 성도의 교제

- **본문** : 사도행전 2:37-47
- **요절** :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 **찬송** : 278장(새찬송가 220장), 456장(새찬송가 430장)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활기찬 교제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주 모였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음식을 나누며, 물질을 내어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등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또 그들은 핍박이 다가올 때일수록 긴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신앙을 요약한 ‘사도신경’에는 특별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모든 성도가 믿고 고백해야 할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도들은 항상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요일 1:3,4) 하심으로 성도의 은혜로운 사귀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 채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도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도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하신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요긴한 지체일지라도 그것이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보기에조차 흉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빈부와 귀천, 학식과 재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힘써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교제 생활은 가진 바를 서로 나누는 생활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말은 ‘함께 상속한다’ ‘함께 나누어 가진다’ ‘서로 나누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연합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빌 1:3~5)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 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형통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성도의 교제는 은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2:44,4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실천적인 사랑의 사귀어 가졌으므로 초대 교회는 온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았을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행 2:47).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세상 인심이 각박해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간에 긴밀한 사귀어 갖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연합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3.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교제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할 때나, 구역에서 성도들과 모임 때나 변함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나 인간적인 교제에 치우치게 되면 그 교제는 인간적인 불평이나 형제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는 부정적인 모임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제가 아니라면 결국 인간적인 친분에 이끌려 분열과 파당을 짓는 어리석은 교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개의 파당이 생겨났으니 서로간에 비방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고전 1:12~13)라고 책망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되,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은혜로운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제를 서로간에 나누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